

전주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학술세미나 개최

전라감영 개도 천년기념 상징공간 조성 하자

(開道)

전라도 천년의 행정중심지였던 전라감영을 전라도 개도 천년을 기념하는 상징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창조·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3일 전주시혁신센터에서 열린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학술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주시와 전북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라감영의 복원을 앞두고 전라감영 역사에 대해 규명하고, 전라감영 공간 영역 및 복원계획의 고증 내용 활용방안, 2018년 전라도 천년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김동영 부연구위원은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에 대한 지정토론을 통해 "지난 1018년 이후 하나의 지역적 공동체로서 공동의 지역명을 가진 전라도 천년의 역사가 가지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예술 등의 분야별 의미 찾기를 통해 전라도 역사를 재조명해야 한다"면서 "전라감영 복원이 완료되는 2018년 전라도 천년 기념식을 전라감영에서 진행해 전라도 천년의 기념과 미래천년의 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파크를 예로 들며, 전라도 천년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역사공원, 정원 등을 갖춘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2016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그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을 전문가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과 하태규 전북대학교 교수, 유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문운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나섰다.

특히 최근 고지도와 일제강점기 지도를 통해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동서축 부지가 현재 옛 전북도청사 부지로 한정됨에 따라, 기존 전라감영 서편부지 개발 계획 및 활용방안, 향후 복원될 전라감영 고증의 내용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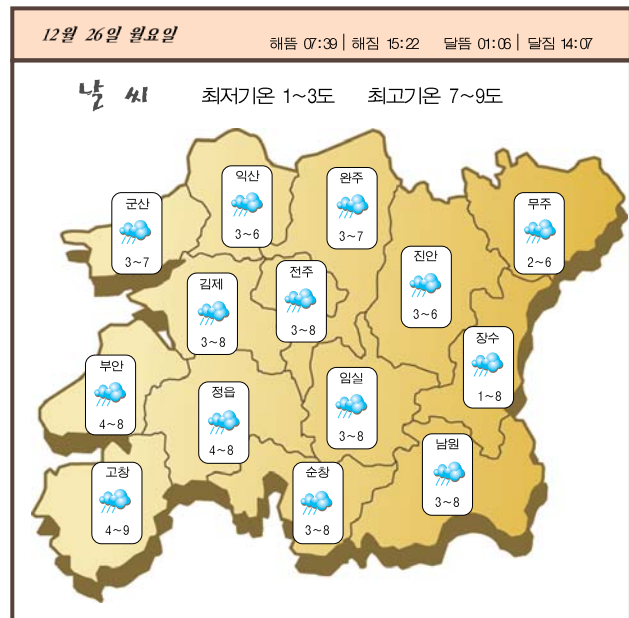
이날 '지도를 통해 본 전라감영 공간 영역'을 주제로 발표한 하태규 전북대학교 교수는 "조선 후기 전라감영의 공간영역은 동서구간 150m정도, 남

북 구간 약 210m정도로 약 9500평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도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고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라감영 복원 기준 시기(19세기 후반)와 복원 기준의 자료(완산십곡명풍도, 보물 제1876호)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성과와 복원 건물 활용 컨텐츠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 박종수 원주시청 문화재팀장과 조영화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를 통해 강연과 경상감영 복원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에 대해 듣는 시간 등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한복착용 활성화 위한 한복진흥사업 본격 시동

한복거리 패션쇼 · 사진 콘테스트 등 한복 관련 행사 구성내용 보강 내년 부터 확대 추진

전주시가 생활 속 한복착용문화 확산을 위해 한복 관련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한복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복진흥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올 한해 한복착용문화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한복장려 시책을 발굴하는 등 생활 속 한복입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2017년에는 한복착용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한복거리 패션쇼와 한복 사진 콘테스트 등 올 한해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한복 관련 행사들의 구성내용을 보강해 내년 부터는 행사를 확대해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한옥마을 중심의 한복입기 문화를 시민 생활속에도 뿌리내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한복 문화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시는 전주시 한복산업의 현황에 대한 세밀한 통계조사를 기초로 유통구조의 개선, 한복제조업의 정체성확립, 한



국제교류활성화 토론회

전북도가 국제교류 활성화 모색과 해외 자매우호지역 확대 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지난 23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 발굴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한옥마을 관광의 주요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한 한복의 활성화를 위해 한복착용문화 진흥조례를 제정, 한복장려 시책 발굴 및 한복의 날 지정 근거와 한복 착용자에 대한 문화시설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는 본격적인 한복진흥정책 추진에 앞서 민관협의체인 한복다움마당을 구성하고, 한복업계와 학계, 일반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시는 국가와 도지정무형문화제가 40여명에 달하는 한(韓) 문화의

보고로서, 전통문화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한복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노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므로, 전통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기 위해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도교육청 우수 학습동아리 발표회 개최

전라북도교육청은 21일 고광휘 행정국장 2016년 학습동아리 회장 및 총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학습동아리 발표회를 했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학습모임을 활성화하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개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 행정역량강화 13팀, 교육행정개선 2팀, 지정주제 4팀 등 총 19개 학습동아리를 운영했다.

일년간의 학습동아리 운영 결과를 심사해 최우수 동아리로 '나랏문서

벼리미', 우수 동아리는 '행나래', 'Plan Up!'을 선정했다.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나랏문서 벼리미는 올바른 공문서 작성을 위한 방안 연구를 주제로 1년 간 운영했다. 또한, 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행나래는 행정 업무 개선을 위한 초보직원 학교회계 행정업무 길라잡이 제작을 Plan Up!(회장 전북외국어고 김영애 사무관은 교육현안 문제를 기획과 보고서 작성을 주제로 운영했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6개 시·군 농어촌 교육특구 지정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어촌 교육특구를 지정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정읍,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지역을 농어촌 교육특구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도교육청은 연간 약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도 약 6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대응부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농어촌 교육특구는 도교육청 비전에 따른 공영사업과 자체 교육현안 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2017년 1월 3일 혁신 교육특구 담당자와 함께 농어촌 교육특구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협의회를 가진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혁신 교육특구와 농어촌 교육특구의 방향성 및 추진 계획을 진단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시가스는 깨끗하고 편리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새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 새해에도 한결 같은 가스안전으로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全北도시가스株式会社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안내

전북도시가스(주)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요금을 경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북도시가스(주) 홈페이지(www.jbcitygas.co.kr)를 참조하시어 소정의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240-7755)